

# 마스터로서의 건축사

## Architect as Master

current view

온 나라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세기 초에는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세기는 남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소회가 아닌 듯 하다.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세계화'와 '지속가능성' 등은 이미 누구나가 다 이야기하는 흔한 용어가 되어 버렸지만 대부분 이 단어가 일으키는 파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재난이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가 함께 하여야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이 같은 재난에는 이미 국경은 의미 없는 구분일 뿐이다.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는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국가 간의 문제로 피해를 입는 쪽이 더욱 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기상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온난화현상은 이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몇 십 년만이었던 더위와 홍수, 산불 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대형의 지진과 태풍의 피해로 오랫동안 이어진 생활의 터전을 잃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시작되어 20세기에 절정을 이룬 산업사회로의 진입이 가져다준 어두운 면인 '인간 중심의 성장'을 지구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는 인류가 오랜 시간을 거치며 적응하여 자리 잡은 귀중한 행성으로 우주를 탐험하러 떠난 우주선 같은 유일한 장소이다. 우주선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우주선의 용량만큼만 허용된다. 이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자연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다. 급격한 기후의 변화와 맞물린 자연 재해는 지난 세기까지 누렸던 인간의 번영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곳에서 지진이 빈발하고 홍수와 산불이 계속되는 지역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재난을 당한 다른 국가를 돕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미 지구촌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 간의 시장을 열고 서로 협조하고 살자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인다. 문제는 국가 간의 격차가 너무 크고 더 걱정인

것은 국가 안에서의 격차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열려진 국가간의 협상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만한 교육이나 대처 방안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다. '쌀 개방 저지'를 위하여 열렸던 협상에서 '서비스업 개방'이 자연스럽게 들러리를 섰으며, 그 속에 '건축 설계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고 대부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상당 기간을 허송세월을 보냈었다.

요즘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밥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일이 되었고 칠레산 과일이 넘쳐나고 있다. 산지를 표시한다고 하나 우리 농산물은 너무 비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며, 단지 멀리서 오는 농산물들이 과도한 방부제를 쓰지 않았기를 바랄뿐이다. 이는 우리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그에 따라 농촌이 거의 빈사상태로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늦게나마 국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자체도 이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온갖 계획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젝트 대부분은 지자체 내의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채 x파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출되면 땅 값이 올라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그럴듯해 보인다. 농촌은 더 이상 농사를 짓는 공간이 아니며 개발을 위한 장소일 뿐이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지자체는 온갖 아이디어를 다 받아들인다. 문제는 이런 계획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며 각 지자체마다 거의 유사한 작업을 하여 서로 공멸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거의 민자유치를 꿈꾸며 장미 빛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중요한 프로젝트는 전문인의 참여와 검증 없이 진행되고 참여하는 전문인도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인이 사후에 뒤처리를 하는 식의 참여이다. 그리고 큰 도시의 프로젝트는 외국인에게, 지역의 것도 외지인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세계화는 거스르기 힘든 파고이고 이를 넘기 위하여 시장을 개방하며 경쟁력을 키워야하는 처지에 외지인의 참여는 환영하여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 보다 좋은 대안 마련을 위하여 그리고 정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라고 하지만, 현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이유는 그리 간단한 것 같지 않다. 능력 있는 건축사나 도시계획가가 참가하여 모범을 보이고 실천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좋으나 그저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며 계획에 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이나 주민들의 현실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며, 지역 호호들을 배불리는 경우로 끝나기도 한다.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만들려는 시도는 매우 뜻있는 것이지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서두르는 계획들은 그냥 시도로 끝날 경우가 대부분이 될듯하여 걱정이 된다.

이제 진정으로 자연을 고마워하며, 그나마 남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삶과 번영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자체 장들도 검증되지 않은 공약 남발과 선거를 의식한 주민들 선동을 그쳐야한다. 개발 위주의 상업주의로부터 벗어나 진지하게 삶의 터전을 보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한다. 들러리를 서는 각종 위원회도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로 거듭 나아 하며 지역의 건축사들도 개발업자나 부동산업자의 일방적인 주도에 경종을 울리며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개개의 건물 계획과 설계에 머무르는 소극적 역할에서 도시 계획과 각종 단지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래의 마스터로서의 건축사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도시의 아파트를 그냥 복제하여 지역의 삶을 흔들고 경관을 해치는 건설회사 위주의 건축설계 봉사에서 떠나 지역의 현실과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타입의 건축설계를 제공하는 건축사로 거듭나야한다. 건설회사의 이름이 공동주거의 값과 질을 결정하는 시대를 넘어 건축사가 삶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체성이 있는 설계를 제안하였으면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제 변화하는 농촌을 주시하여야 한다. 이곳마저도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다. 더 이상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농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간 건축사 대부분이 도시 건축을 위하여 힘 써왔고 농촌은 특수한 경우로 치부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농촌과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을 위한 지역 건축 조성에 우리 건축사들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개방화 시대일수록 지역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